

1개공고 1·2학년의 음주·흡연·약물오남용· 성경험실태조사(1991년도)

金 恩 愛*

I. 서 론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서적 변화가 어느 시기보다 두드러지며 生物學的·精神的 및 社會的·心理的 문제는 물론 이들 상호관계성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도 많은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주체성을 찾고 성숙된 사회인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人格 기능을 통합하는 중요한 시기로 兒童期와 成人期사이의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본교학생들의 음주·흡연·약물오·남용·성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조사하였으며 가정의 기능중 子女의 양육·생계등 重要한 요소인 生活程度를 알아보는 것은 학생들의 生活面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가정환경의 특성도 아울러 조사하여 본교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을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은 동도공업고등학교 주·야간 1·2학년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자료는 1,462명(부)로 97%였다.

조사내용은 문항을 5개영역으로 분류하고(일반적특성, 음주·흡연·약물오·남용·성경험)이들

은 다시 32개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학생의 생활실태에 관한 질문지였다. 이 질문지는 태도나 의식구조를 밝히려는 척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실태와 동기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인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으며, 한편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행동을 인지하고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학생들의 문제종류와 동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만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使用된 道具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통계자료의 기준 및 처리방법은 각 영역별·문항별실수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개항목 내용을 분석하였다.

III.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1>

생활정도를 보면 40만~60만원이 32.9%로 가장 많고 60~80만원이 27.5%, 80만원이상이 22.1%, 20~40만원이 14.5%, 20만원이하가 3.0%로 나타나고 있다.

부친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1.3%, 중학교 졸업이 31.2%, 국민학교졸업이 17.8%, 전문대졸이상 7.0%, 무학이나 한글해독 2.7%

모친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37.7%, 고등학

* 동도공업고등학교

교졸업이 27.8%, 국민학교졸업이 27.8%, 전문대졸이상 2.6%, 무학이나 한글해독 4%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학교생활이 관심정도는 관심을 많이 갖는다가 55.6%로 가장 많으며 그제 그렇다가 39.5%, 별관심이없다가 4.9%로 나타난다.

학생측 입장에서 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 실력이 없어서가 65.5%로 가장 많고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22.7%, 집에서부터 가까워서가 8.2%, 가정형편이 어려워서가 3.6%로 나타나며 학과 만족도는 그제 그렇다가 52.5%, 적성에 알맞다가 33.5%, 맞지 않는다가 14%이다.

선생님과 의 관계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가 41.4%, 그제 그렇다가 46.5%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가 12.1%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생활은 그제 그렇다가 49.9% 차차 흥미가 있다가 37.4% 차차 흥미가 없어진다가 12.7%를 나타나고 있다.

부모는 직업은 상업이 31.8%, 회사원이 14%, 노동이 13.3%, 공업이 12.1%, 기타가 19.6%, 공무원 7.5%, 농업이 1.6%로 나타나며

자신의 성격은 중간정도 38.7%로 가장 많으며 활발한 편이 34.4%, 내성적이 26.9%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나의 형제중 순서를 보면 장남이 39%로 가장 많으며 막내가 35.8% 차남이 13.5% 외아들이 7.0% 중간이다가 4.7%로 나타났다.

친구수는 6명이상 56.7%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여러명의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5명 24%, 1~2명이 15.4% 친구가 한명도 없는 학생이 4%로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친구의 必要性을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구분	계	
		N	%
생활 정도	20 만 원 이하	44	3.0%
	20 ~ 40 만 원	212	14.5%
	40 ~ 60 만 원	481	32.9%
	60 ~ 80 만 원	401	27.5%
	80 만 원 이상	322	22.1%

문항	구분	계	
		N	%
부친 학력	전문대졸이상	108	7.0%
	고등학교졸업	639	41.3%
	중학교졸업	482	31.2%
	국민학교졸업	275	17.8%
	무학이나한글해독	42	2.7%
모친 학력	전문대졸이상	39	2.6%
	고등학교졸업	413	27.8%
	중학교졸업	560	37.7%
	국민학교졸업	413	27.8%
	무학이나한글해독	59	4%
나의학교 생활에 부모님의 관심정도	관심을많이갖는다	804	55.6%
	그제그렇다	572	39.5%
	별관심없다	71	4.9%
학교선택이유	적성에적합	337	22.7%
	가정형편	54	3.6%
	실력고려	970	65.5%
	통학고려	121	8.2%
학과만족	적성에알맞다	506	33.5%
	그제그렇다	793	52.5%
	맞지않는다	211	14%
선생님관계	존경하는선생님이있다	609	41.4%
	그제그렇다	683	46.5%
	존경하는선생님이없다	178	12.1%
학교생활	흥미가있다	556	37.4%
	그제그렇다	741	49.9%
	흥미가없다	189	12.7%
부모의 직업	농업	24	1.5%
	공업	178	12.1%
	상업	469	31.8%
	공무원	111	7.5%
	노동	196	13.3%
	회사원	207	14%
	기타	289	19.6%
나의성격	내성적	400	26.9%
	활발한편이다	512	34.4%
	중간정도이다	575	38.7%
나의형제중	장남	576	39%
	차남	199	13.5%
	막내	529	35.8%
	중간	69	4.7%
	외아들	104	7.0%
친구의수	한명도없다	159	4%
	1 ~ 2명	228	15.4%
	4 ~ 5명	354	24.7%
	6명이상	840	56.7%

2. 음주에 대한 반응은 <표 2>와 같다.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8.3%로 많은 학생들이 飲酒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동기는 호기심에서가 27.2%, 친구의 권유로가 25.9%, 선배의 권유가 13.1%, 기타가 33.8%로 기타이유가 가장 많으며

한달 음주의 횟수는 1~2회가 60.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3~4회가 20.6%, 5~10회가 11.9%, 10회 이상이 6.6%로, 10회 이상의 6.6%는 어느정도 常習의이 아닌가 느껴진다.

음주의 분위기는 단순히 친구와 어울려서가 38.3%, 기분이 좋거나 나빠서가 38.3%, 등산·야유회등에서가 18.1%, 습관적으로가 5.3%로 음주 횟수 10회이상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음주의 분량은 1병 이내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2병이내가 23.8%, 3병이 15.2%, 3병이상 25.2%로 음주량이 많은 학생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飲酒에 대한 反應

분항	구분	계	
		N	%
음주의 여부	마 신 다	862	59.3%
	안 마 신 다	592	40.7%
음주의 동기	호기심에서	223	27.2%
	친구의 권유로	212	25.9%
	선배의 권유로	107	13.1%
	기 타	277	33.8%
음주의 1개월 횟수	1 ~ 2 회	405	60.9%
	3 ~ 4 회	135	20.6%
	5 ~ 10 회	79	11.9%
	10 회 이상	44	6.6%
음주의 분위기	단순히친구와어울려서	312	38.3%
	기분이 좋거나 나빠서	312	38.3%
	등산·야유회등에서	147	18.1%
	습관적으로	43	5.3%
음주의 분량	1 병 이 내	294	35.8%
	2 병	195	23.8%
	3 병	125	15.2%
	3 병 이상	207	25.2%

3. 흡연에 대한 응답은<표 3>과 같다.

흡연에 대한 設問의 應答結果를 보면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의 흡연량은 1~2개피가 55.4%로 가장 많으며 3~5개피가 16.5%, 6~10개피가 15.6%, 10개피~1갑 12.4%나 되어 Heavy smoker들도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학년 학생까지 포함하여 흡연경험이나 흡연량을 가상해 보면 흡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의 동기는 대부분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호기심으로 46.2%를 차지하고 친구의 권유로 26.6%, 선배의 권유로가 6.5%, 기타가 20.6%를 나타내고 있다.

흡연의 첫시기는 중학교 시설이 48.7%로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 시설 41.9%, 국교시설 9.5%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장소로는 친구의방, 나의방이 41.6%, 노상에서가 27.2%, 변소에서가 24.1%, 가게 3.7%, 만화가게 3.4%를 나타나고 있음.

<표 3> 吸煙에 대한 反應

분항	구분	계	
		N	%
흡연의 여부	피 운 다	638	43.8%
	안 피 운 다	818	56.2%
하루의 흡연량	1 ~ 2 개 피	611	55.4%
	3 ~ 5 개 피	182	16.5%
	6 ~ 10 개 피	172	15.6%
	10 개 피 ~ 1 갑	137	12.4%
흡연의 동기	호기심에서	278	46.2%
	친구의 권유로	160	26.6%
	선배의 권유로	39	6.5%
	기 타	124	20.6%
흡연의 시작	국 교 시 절	60	9.5%
	중 학 교 시 절	308	48.7%
	고 등 학 교 시 절	265	41.9%
흡연의 장소	변 소	142	24.1%
	나의방·친구방	245	41.6%
	노 상	160	27.2%
	가 게	22	3.7%
	만 화 가 게	20	3.4%

4. 습관성 약품 使用에 대한 반응은<표 4>와 같다.

습관성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6%이다. 동기에 있어서는 호기심이 47.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친구의 권유가 26.8%, 선·후배의 권유로 12.4%를 차지하며 사용으로 인한 症狀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34.4%, 멍청해지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28.4%, 중독상태가 21.6%, 때로는 환각·피해망상·과대망상증이 14.7%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횟수는 주 1~2회 55.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주 3~4회 20.7%, 주 6회 이상이 24.1%로 나타남.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로는 환각성흡입물질(본드·부탄가스)가 52.1%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성제가 23.4%, 환각성의 약품이 14.9%를 나타냄

습관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음주나 흡연과는 달리 정신·신경학적인 것에 미치는 영향 및 생명에 지장을 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反應

문항		구분		계	
				N	%
습관성의약품 사용 유 무	있	다	80	5.6%	
	없	다	1,343	94.4%	
습관성의약품 사용 동기	호기심		46	47.4%	
	친구의 권유로		26	26.8%	
	선후배의 권유로		12	12.4%	
	신체적 고통해결		10	10%	
	정신적 고통해결		3	3.1%	
습관성의약품 사용 횟수	주 1~2회		48	55.2%	
	주 1~4회		18	20.7%	
	주 5회 이상		21	24.1%	
습관성의약품의 종류	각성제		22	22.7%	
	환각성(본드등) 흡입 물질		49	50.5%	
	중독성의약품		9	9.3%	
	환각성의약품		14	14.4%	
	기타		3	3.1%	

문항		구분		계	
				N	%
습관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증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		35	34.3%	
	중독 상태		22	21.6%	
	멍청해지고 기운이 없는 상태		29	28.4%	
	때로는 환각·피해망상·과대망상증		15	14.7%	
	난폭한 행위나 자살을 하고 싶다		1	1%	

5. 성관계에 대한 반응은<표 5>와 같다.

性關係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 중 13.1%인 188명이 유경험자인데 이들이 행한 性關係의 對象은 학생이 61.5%, 직장인이 11%, 매춘부 12%, 기타가 15.5%로 나타나고 있다.

성관계의 동기는 好奇心이 52.2%로 가장 많고 선배·친구의 피임에 의하여가 19.9%, 결혼한 약속이 되어서가 9.1%, 기타가 18.8%로 나타나고 있다.

성관계를 한 장소는 숙박업소가 35.7%, 가정집 35.7%, 야외가 14.8%, 기타장소가 13.8%로 나타나며

성관계 상대방과의 관계는 여자친구가 61.1%, 결혼약속이 10.9%, 기타가 20.2%, 친척관계가 7.8%로 나타나는데 특히 친척관계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性教育이 절실히 必要하다.

이성문제에 대하여 고민한적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있다가 20.8%, 가끔있다가 40.9%로 전체학생이 61.7%가 이성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性關係에 대한 反應

문항		구분		계	
				N	%
성관계경험의 유 무	있	다	188	13.1%	
	없	다	1,248	86.9%	
성관계의 동기	선배·친구의 피임에 의하여		37	19.9%	
	호기심		97	52.5%	
	결혼할 약속이 되어서		17	9.1%	
	기타		35	18.8%	

문항		구분	계	
			N	%
성관계의 상대	학생		123	61.5%
	직장인		22	11%
	매춘부		24	12%
	기타		31	15.5%
성관계의 장소	가정집		70	35.7%
	숙박업소		70	35.7%
	야외		29	14.8%
	기타지역		27	13.8%
상대방과의관계	친구		118	61.1%
	결혼약속		21	10.9%
	친척관계		15	7.8%
	기타		39	20.2%
이성문제의고민	있다		260	20.8%
	가끔있다		511	40.9%
	없다		479	38.3%

IV. 결 론

본교 학생 대상으로 음주·흡연·약물오·남용·성경험의 양상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학생들의 생활정도는 저소득근로자가 (60만원이하) 50.4%를 차지하며 부모의 자녀의 관심도 55.6%로 높으며 부친학력 중졸이하가 51.7%, 모친학력 중졸이하가 69.5%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혼운적 기능, 가정교육의 요구수준

을 생각해보게 된다.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없는 흥미가 없다 12.7%,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12.1%, 학과가 맞지 않는다가 14%등은 학교가 장래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기본적 태도의 수련장이어서 좋은 전통이나 도덕적 습관을 전수시켜야 됴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적응장애 등, 학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요구된다고 본다.

2. 1·2학년의 대상으로 음주(58.3%) 흡연(43.8%) 경험도가 높으며 특히 성장기의 학생이 한 달에 음주를 10회이상(6.6%)마신다거나 습관적으로 마신다(5.3%), 음주분량이 3병이상(25.2%)는 건강에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음주를 하면 흡연·약물오·남용·성경험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의 미가 크다고 본다.

3. 본교학생들이 습관성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80명(5.6%),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188명(13.1%)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며 동기에서보면 호기심이 습관성 의약품(47.4%), 성경험(52.2%)로 학생의 무지한 호기심이 무절제하게 나타나 비교육적 경험을 하게되며 청소년의 비행과도 상관관계가 높다고 사료되며, 생활지도방법이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끝.